

2011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편집자 주]

2011년도 건설업적용 노무관련 요율표

□ 국민건강보험요율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비 고
보수월액	5.64%	5.33%	5.08%	사용자, 가입자 각 50%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2.82%)×6.55% (사용자, 가입자 각각 약1.85% 부담)

□ 국민연금보험요율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비 고
기준소득월액	9%	9%	9%	사용자, 가입자 각 50% 부담

□ 고용보험요율

구 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상시근로자 150인미만		0.25%
	상시근로자 150인이상		0.45%
	상시근로자 150이상~1,000인 미만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 고용노동부 고시

구분	고시부문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7/1,000	34/1,000
	건설공사 원도급	28/100	28/100	28/100
	노무비율 하도급	32/100	32/100	32/100
고용 보험	상용근로자 산정시 건설업 월평균 임금	3,007,852원	2,844,682원	3,332,820원
장애인 의무 고용	건설업 적용 공사 실적액(50인 기준)	70억4천9백만원	62억3백만원	70억8천4백만원
	장애인가용부담 기초액(1인당/월)	560,000원	530,000원	510,000원
최저 임금	모든 산업	4,320원	4,110원	4,000원



무한지식

자동차 타이어의 무늬는 왜 필요할까?

2005년 2월 28일 밤, 충남 천안시 용곡동의 한 도로에서 50대의 김모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을 대학에 보낸 가장인데, 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 수사팀을 고민에 빠뜨렸다.

다만 한 가지, 사고 차량이 그의 몸 위로 지나갔다는 사실에 수사팀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다. 수사팀은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결국 그 타이어는 4톤 내지 5톤 트럭에 쓰이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로 수사팀은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다.

이것은 뺑소니 차량 검거율이 높기로 유명한 천안경찰서의 사건 파일이다. 타이어 자국을 추적한 이와 같은 수사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타이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 덕분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타이어의 이 무늬들은 왜 만들어놓은 것일까?

타이어에 새겨진 무늬를 패턴이라고 하는데, 타이어를 따라서 세로로 길게 새겨진 무늬는 리브 패턴, 가로로 들어간 무늬는 러그패턴, 그리고 세로와 가로가 함께 들어간 무늬는 리브러그 패턴이라고 한다. 이런 무늬들은 대개 7~8cm 깊이로 새겨져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

양으로 새겨졌는지에 따라 제동력과 구동력 그리고 승차감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차량, 어떤 목적이나에 따라 타이어 무늬가 결정된다.

먼저 세로무늬가 들어간 리브 패턴은 주로 승용차에 사용된다. 그 이유는 미끄러지는 듯한 승차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가로무늬가 들어간 러그 패턴은 트럭이나 버스 뒷바퀴에 사용된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동력 때문이다. 제동력이 좋아야 덩치 큰 차를 손쉽게 멈출 수 있으니까.

한편, 무늬가 없는 타이어도 있다. 이것은 일명 슬릭타이어라고 하는데 자동차 경주용으로 사용된다. 울룩불룩한 무늬가 아예 없으니 속도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노우타이어는 무늬가 더 깊고 울룩불룩해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가끔 보면 타이어를 바꿀 때가 됐는데도 무심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어 무늬는 차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그것이 마모되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비가 오는 날 마모된 타이어 그대로 운전하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두세 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바꿔줘야 하는 것은 타이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